

곡성 농어촌 기본소득, 상권 활력·소비 촉진

군민 2만2540명 1인당 30만원...67억5600만원 지급 총 지급액 중 65% 사용...가맹점도 1227개소로 확대

곡성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이후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를 뚜렷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곡성군에 따르면 3월 30일 곡성군민 2만2540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총 67억5600만원 규모의 기본소득이 처음 지급됐다.

지급된 금액은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며 상권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4월 14일 기준 전체 지급액의 65% 이상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읍 지역은 81.7%, 면 지역은 58.6%의 사용률을 기록해 빠른 소비 순환이 이뤄지고 있



는 것으로 집계됐다. 읍면 가맹점 사용 현황을 보면 면 가맹점 사용률이 59.6%로 읍 가맹점(40.4%)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사용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고달면에서도 51.5%의 사용률을 보이며 비교적 높은 이용 실적을 보였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17%로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였으며, 주민 전체가 사용이 가능한 5대 업종 간의 이용률은 병원·약국 64.3%, 학원 30.9%로 생활밀착형 업종 전반에서 고른 소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 확대도 성과를 보인다. 곡성기차마을전통시장 상인회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자등록 및 단말기 설치 지원한 결과 전통시장 내 노점 판매에서도 기본소득 사용이 가능해지며 이는 가맹점 이용률 3%(2순위)로 이어졌다. 또 기본

소득 사용 가능 가맹점은 1월 말 대비 130개소가 증가한 1227개소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효도장터(이동차량판매), 인경전문점, 배달음식점 등 기존에 없던 신규 업종 창업이 이어지며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더하고 있다. 면 지역 슈퍼에서도 단말기를 설치해 기본소득 카드사용 환경이 개선되는 등 소비 접근성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기본소득 지급 이후 지역 내 다양한 업종에서 소비가 빠르게 이뤄지며 상권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

고 있다"며 "앞으로 면 지역 가맹점 확대와 사용 편의성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4월 기본소득은 오는 29일 지급될 예정으로, 1월분과 4월분을 포함해 총 30만원이 지급된다. 또 기본소득 신청을 놓친 기존 거주자의 경우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시 최대 3개월까지 소급 적용이 가능하며, 소급 신청 기한은 6월 말까지 적용된다. 곡성=김유원 기자 hnnews1@gwangnam.co.kr



“라떼아트 따라해 봐요” 함평군이 지역 식문화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한 커피와 디저트 교육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난날 18일부터 한 달 간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교육장에서 총 10회에 걸쳐 ‘농촌에서 배우는 커피와 디저트’ 교육을 진행, 군은 커피와 디저트 분야 전문가 2명을 초청해 커피 추출 기술과 디저트 제조 실수 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했다. 사진제공=함평군청

토요 감성 힐링 여행 ‘영광 쉽 투어’ 출발

10월 31일까지 3개 코스 운영

영광군은 오는 10월 31일까지 토요 감성 힐링 여행 ‘2026년 영광 쉽 투어’를 운영한다. ‘영광 쉽 투어’는 천년의 역사와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영광의 특색 있는 문화관광 자원을 해설사와 함께 주요 관광지 구석 구석을 누비는 프로그램이다. 2023년부터 꾸준한 관심을 받아왔다. 올해에는 체험 프로그램이 추가, 다채로워진 3개의 코스로 마련됐다.



A코스는 테마식물원-송정-꽃동산-백제불교최초도래지-백수해안도로 등으로 이뤄졌다. B코스는 백제불교최초도래지-송정-꽃동산-백수해안도로-불갑사-테마공원-물명심터 등이다. C코스는 불갑사-물무산 행복숲 향토길-대마서로마

를 체험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C코스는 체험형 프로그램과 다양한 식사 메뉴 선택을 통해 지역의 맛을 경험하며 여유로운 하루를 보낼 수 있다. 모든 코스의 출발지는 광주 유스퀘어와 광주중정역이다. 1인 이용 요금은 3만원이며 버스 탑승료와 중식, 간식비 등이 포함됐다. 만 5세 미만 영유아는 무료다. 영광 쉽 투어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전일 오후 5시에 마감된다. 7~8월에는 폭염으로 제외된다. 영광=정규필 기자 ykjp98@gwangnam.co.kr

순천 선암사 진입로 복구 완료 송광사 천자암 요사채 재축도

순천시는 국가유산청과의 협업을 통해 지난 피해를 입은 지역 국가유산 복구를 신속히 완료했거나 현재 추진 중이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일부 소실된 선암사 진입로는 발생 다음 날 시 자체예산 투입해 긴급 임시복구를 완료하며 신속히 안전을 확보했다. 같은 해 12월 설계 승인 후 올해 1월 공사 확보를 거쳐 2월 착공해 3월 복구를 완료했다. 또한 지난해 3월 화재로 전소된 송광사 말사 천자암 요사채는 인명 피해 없이 초기 대응을 마쳤으며, 천연기념물 생황수 등 주요 국가유산도 안전하게 보호했다. 시는 설계 승인 등을 완료하고 4월부터 재축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순천=박철석 기자



선암사 진입로

고흥,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마련 임업후계자·독립가 역량 강화 목표

고흥군은 지역 임업 발전을 이끌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임업후계자와 독립가 신청을 수시로 접수하며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고 있다. 임업후계자와 독립가는 산림을 지속적으로 경영하며 임산물 생산과 산림자원 관리를 담당하는 핵심 인력으로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임업인을 대상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현재 고흥군에는 임업후계자 318명과 독립가 29명이 지정돼 체계적인 관리 받고 있다. 군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임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임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임업후계자와 독립가는 지역 임업의 미래를 이끌 중요한 세대”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굴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경쟁력 있는 임업인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gwangnam.co.kr

여수, 전국 최초 외상장애인 콜택시 도입

교통약자 이동권 향상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

여수시는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외상장애인 콜택시’를 도입해 안정적으로 운행 중이다. 시는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이동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다. 바우처택시를 전체 택시로 확대하고, 광역이동지원센터와 연계한 배차 서비스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외상장애인 콜택시는 침대(와상) 상태로 이동이 필요한 중증장애인과 이용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차량이다. 평소에는 일반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한 교통수단으로 활용되며, 외상장애인이 사전 예약할 경우 해당 시간에 맞춰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의 선진 사례는 전국 지자체의 관심을 받으며,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방면도



여수시는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외상장애인 콜택시’를 도입해 안정적으로 운행 중이다. 사진제공=여수시청

이러고 있다. 특히 지난 14일에는 순천시 관계 공무원들이 여수시를 방문해 외상장애인 콜택시 운영 현황과 시스템 전반을 살펴보고, 현장 중심의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장애인 콜택시의 운영 체계와 구조, 기능, 이용 절차 등을 바탕으로 정책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시는 장애인 콜택시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일 당일 무료 이용 서비스를 제공했다. 등록 장애인은 별도의 요금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어 이동 편의 증진과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나주천연염색문화재단, ‘문화 있는 날’ 운영 11월까지 빛가람 혁신도시 일원서 추진

나주천연염색문화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남도, 나주시가 주최하고 전남문화재단과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 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일상에서 쉽게 만나는 문화’를 주제로, 오는 11월까지 빛가람 혁신도시 일원에서 추진된다. 공예 전문 강사가 빛가람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으로 직접 찾아가는 ‘문화배달’

사업을 비롯해, 지역 공연자와 함께하는 ‘노래 없는 음악 공연’ 등 시민들의 생활 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풍성한 문화 프로그램이 연중 이어진다. 임경렬 한국천연염색박물관장은 “이번 사업은 시민들이 혁신도시 안에서 쉽게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마련했다”면서 “공원과 직장으로 배달되는 다채로운 숨쉬 경험 이 바쁜 일상에 새로운 활력과 영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조현천 기자

보성 붓재 ‘그린다향’, 소비자 만족도 높다

보성말차 열풍 입증... 카페·디저트 전국 최상위

보성군 직영 시설인 붓재 내 카페 ‘그린다향’이 ‘2026 한국소비자산업평가’ 카페·디저트 부문에서 최종 우수업체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대한소비자협회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평가가 주관해 전국 카페·디저트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포털사이트 이용자 리뷰와 만족도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위 32.97% 후보군을 선별한 뒤 제품·서비스 전반에 대한 평가를 거쳐 최종 상위 0.3% 이내 우수업체를

선정했다. 평가 항목은 제품 만족도, 접근성, 시선 편의성, 직원 친절도, 인테리어 및 분위기 전반적 만족도 6개 분야로 구성됐다. ‘그린다향’은 전 항목에서 고른 상위 점수를 기록했다. 특히 보성산 프러미엄 말차를 활용한 차별화된 메뉴 구성이 핵심 경쟁력으로 꼽혔다. 최근 건강과 미식을 동시에 추구하는 ‘헬시플레저(Healthy Pleasure)’ 소비 경향이 확산돼 고품질 원료 기반의 보성 말차 음료·디저트가 소비자 만족도를 끌어올린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직접 매장을 방문하신 고객들이 주신 평가로 선정된 상이라 더욱 영광스럽고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보성 차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린다향’의 메뉴는 보성말차를 활용한 말차아이스크림라떼, 말차크림라떼, 말차흑당바블 등 비롯한 음료 46종과 디저트 7종으로 구성돼 있으며, 다음달 1일부터 5월까지 한국차문화공원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49회 보성다향대축제’ 기간에도 다양한 메뉴를 선보일 예정이다. 보성=임태형 기자 lmth66@



카페 그린다향 전경